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②	2	③	3	④	4	⑤	5	③
6	④	7	②	8	⑤	9	①	10	⑤
11	②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④	27	⑤	28	②	29	③	30	④
31	④	32	②	33	③	34	④		

[독서이론]

[1 ~ 3] <출전> 친경록 외, 「독서 교육론」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윗글은 요약하기의 방법으로 거시규칙을 설명하고 있고, 4문단에서 거시규칙 중 하나인 ‘일반화’는 ‘의미의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명제들을 더 일반적인 명제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거시규칙은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규칙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독자가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요약하기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학생의 요약]을 보면 ㉔에 있는 명제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와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는 명제들의 의미를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명제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명제는 ‘선택’되어 남아 있는 것이지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명제로 대체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후속 명제인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폐, 근육, 관절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불필요하여 지웠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은 ‘심장, 폐, 근육, 관절’이라는 하의어를 의미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신체’라는 상의어로 대체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은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앞선 문장에 대한 예시라서 지웠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해야 한다.’, ‘시간과 양이 부족하면 늘린다.’, ‘시간과 양이 많으면 줄인다.’라는 명제들의 의미를 통합하여 ‘운동은 자신에게 맞게 시간과 양을 조절하며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A]는 거시규칙을 적용하여 요약하기를 하면 핵심 명제를 확인할 수 있고, 단락별로 요약하여 글의 구조를 확인하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기>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고 글의 구조를 정리하면 핵심어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도출하기 쉽다는 내용이므로 [A]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

[인문]

[4 ~ 9] <출전> 박은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마르쿠스 가브리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관점에 대해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나)는 관념론자와 자연주의자들이 세계를 각각 정신과 자연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브리엘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나)의 3문단에서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한다고 곧 참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3문단에서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에서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며, 그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2문단에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ㄱ은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가)의 쇼펜하우어는 2문단에서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 개인의 인식 원리 ~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라고 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ㄱ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나)의 가브리엘은 3문단에서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4문단에서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고 하였으므로 ㄱ에 동의할 것이다. ㄴ은 ‘세계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만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가)의 쇼펜하우어는 1문단에서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의 가브리엘은 1문단에서 ‘서로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며, 3문단에서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으므로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ㄷ은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사물의 실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가)의 쇼펜하우어는 2문단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이며, 5문단에서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ㄷ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나)의 가브리엘은 3문단에서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며,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보고, 의미장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실재에 대해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ㄹ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은 원자로부터 비롯된 물질로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가)의 쇼펜하우어는 4문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다. 또한 (나)의 가브리엘은 1문단에서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며, 모든 실재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에 대해 4문단에서 ‘자연주의자들’이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7.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쇼펜하우어는 2문단에서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표상된 것일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㉑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떠올린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가브리엘은 4문단에서 ‘관념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즉,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㉒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에는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3문단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재 그 자체’라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인간은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다른 사물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하였고,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가브리엘은 족장과 아버지의 각 의미장에서 서로 다른 실재로 보는 것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실재’로 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쇼펜하우어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아들이 ‘길고 단단한 뿔이 난 동물을 보’고 “사슴”이라고 생각’한 것과 ‘아침이 되어서 보’게 된 ‘노루의 뿔’은 모두 시각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므로 아들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무기물, 식물, 동물, 나아가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홀로 밀림에 들어간 ‘아들’과 아들이 가져온 ‘노루의 뿔’은 각각 인간과 동물의 일부로,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서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을 ‘사실’이라고 하였고,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진 정황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하며, 3문단에서 ‘실재 세계’는 ‘의지’이며, 의지가 ‘실재 그 자체’라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하였고,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아들의 상상 속 ‘사슴의 뿔’과 아들이 착각한 ‘사슴’을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보지 않는 것과 달리 가브리엘은 모두 실제로 볼 것이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㉔는 문맥상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㉑의 ‘그는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에서 ‘따라’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㉒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다른 사람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10 ~ 13] <출전> 한국과학기술원, 「첨단 진동제어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내진제어 통합시스템 개발」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 수신’하고 ‘제어기는 수신한 전압의 값을 토대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다’고 하여 제어기가 가속도를 산출한 것은 알 수 있지만 가속도 감지기가 제어기로부터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1문단에서 ‘건물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㉒ 4문단에서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㉓ 3문단에서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에서’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에서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고 했고 ‘이때 발생한 전압은 ~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특성 파악하기

1문단에서 ‘자기 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에 ~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 점성이 커진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여 ~ 이동하며 마찰을 일으켜’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감쇠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자기 유변 유체는 진동을 감쇠하는 물질이지 진동에 비례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1문단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면 ~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㉓ 1문단에서 ‘이 유체는 ~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1문단에서 ‘자기 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㉕ 4문단에서 ‘감쇠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 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자기장을 생성하여 ~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 감쇠력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여 감쇠기에서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 조절을 통해 감쇠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그래프를 통해 글의 내용 파악하기

그래프에서 ㉔는 ㉔와 감쇠력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이므로 감쇠력의 작용 방향은 ㉔와 반대임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건물이 진동하면 ~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㉔에서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최초 건물이 움직인 방향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㉔에서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㉔의 반대이므로 최초 건물이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다. ㉔에서의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㉔와 부호가 같으므로 최초 건물이 움직인 방향인데 4문단에서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㉔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최초 건물이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둘의 방향은 같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㉔는 그래프에서 건물이 진동을 시작해 감쇠력이 1000N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점으로, 4문단에서 ‘건물이 진동하면’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㉔에서 감쇠기의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건물의 최초 운동 방향과 같음을 알 수 있고 3문단에서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고 했으므로 건물의 진동이 시작할 때 질량체가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 방향은 최초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임을 알 수 있어 적절하다. ㉓ 그래프의 ㉔에서 감쇠력은 1000N으로 <보기>에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감쇠력인 500N보다 크므로 5문단을 통해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커서 ‘제어기에서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 ~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 상태임을 알 수 있고, ㉔에서의 감쇠력은 500N으로 <보기>에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감쇠력과 같으므로 5문단을 통해 ‘제어기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 자기 유변 유체가 ‘기존 점성의 크기’를 지닌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에서 ㉔ 사이에서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하다. ㉔ ㉔와 ㉔에서의 감쇠력의 부호가 다르므로 작용하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500N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감쇠력은 500N이란 것에서 ㉔와 ㉔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 이런 상태는 ‘제어기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5문단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기준값보다 크면, 제어기에서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 ~ 자기장을 생성하여 감쇠기의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 감쇠력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그래프의 ㉔에서 감쇠력은 1000N으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감쇠력인 500N보다 크므로 자기장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㉔에서 압전소자에 발생한 전압의 값은 제어기의 기준값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㉔에서의 감쇠력은 ㉔와 부호가 다르므로 감쇠력의 작용 방향이 ㉔와 반대이고 크기는 500N임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감쇠력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때 압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은 제어기의 기준값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의 전압의 값은 기준값보다 크고 ㉔의 전압의 값은 기준값보다 작아 ㉔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이 ㉔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1문단에서 자기 유변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점성이 커진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제어기에서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 자기장을 생성하면 ‘감쇠기의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다고 했으므로 자기 유변 유체가 ‘기존 점성의 크기’를 지닌 상태는 자기

장이 생성되지 않아 자성 입자가 배열되지 않은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14 ~ 17] <출전> 김영세, 「게임이론」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새플리 값으로 비용을 분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의 ‘연합의 경제주체들이 ~ 있는 기준이다’에서 새플리 값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3문단의 ‘새플리 값을 구할 때는 ~ 새플리 값이 결정된다’에서 새플리 값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5문단의 ‘최근에는 새플리 값이 ~ 적용되고 있다’에서 새플리 값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의 ‘이때 가중치란 ~ 확률을 뜻한다.’에서 가중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을 보면 한계기여도는 ‘특정 경제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비용에서 특정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연합의 총비용을 빼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A, B,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지자체 B의 한계기여도는 지자체 A, B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22억 원에서 지자체 B가 참여하기 전 지자체 A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6억 원을 뺀 16억 원이다. 또한 지자체 C의 한계기여도는 지자체 A, B,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 30억 원에서 지자체 C가 참여하기 전 지자체 A, B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 22억 원을 뺀 8억 원인데, 이는 지자체 B의 한계기여도보다 작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가중치는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이 나타날 확률’이므로 지자체 A, B, C가 모두 참여하여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들은 한 번씩 나타난다. 따라서 각 연합들의 가중치는 모두 같으므로 적절하다. ㉓ 5문단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새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A, B, C의 새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세 지자체가 형성한 연합에서 발생하는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을 보면 ‘특정 경제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연합에서 발생한 총비용의 증가분’이 한계기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C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비용의 증가분 즉 한계기여도는 지자체 B, A,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30억 원에서 지자체 C가 참여하기 전 지자체 B, A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22억 원을 뺀 8억 원이므로 적절하다. ㉕ 지자체 B, C, A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지자체 A의 한계기여도는 지자체 B, C, A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30억 원에서 지자체 A가 참여하기 전 지자체 B,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총비용인 30억 원을 뺀 0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A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새플리 값은 ‘경제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총비용의 증가분’ 즉 경제주체의 한계기여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데, 한계기여도는 ‘경제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새플리 값이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인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

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경제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의 중요도가 동일하도록 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유적지까지 갈 때’의 ‘가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로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의 의미인 ‘회귀하다’로 바뀌 쓸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증가분을 뜻하며’의 ‘뜻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말이나 글이 무엇을 뜻하다’의 의미인 ‘의미하다’로 바뀌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총비용을 빼서 구한다’의 ‘빼다’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의 의미로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덜어 내어 셈하다’의 의미인 ‘감하다’와 바뀌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한계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 ‘달라지다’는 ‘변하여 전과는 다르게 되다’의 의미로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의 의미인 ‘변동되다’와 바뀌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총비용인 4,400원과 같다’의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의 의미로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의 의미인 ‘동일하다’와 바뀌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18 ~ 21] <출전> 작가 미상, 「장한절효기」

1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제비 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에 범 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을 지녔을 뿐 아니라, 키는 8척이나 되었고 위풍 또한 늠름했다’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한씨가 장영을 만나고 혼절하자 장영과 계향이 한씨에게 ‘급히 약물을 먹이고’ 한씨를 ‘간호했다’고 한 것에서, 장영과 계향이 함께 한씨를 간호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진한이 모반’하자 ‘천자는 여러 번 대병을 보냈으나 이들이 번번이 패’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장영이 ‘황성에 도착’하여 ‘자기가 쓴 상소를 내어 관원에게 주며 이를 천자에게 전하라 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영릉 지경에 도착한 장영’이 진한에게 ‘격서를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장영이 ‘한 부인을 모시고 원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고, ‘이날 두 모친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의 ‘내 나이가 많으니’에는 자신의 처지가 언급되어 있으며,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다. ㉡의 ‘그렇지 않았더라면 ~ 외로운 귀신이 되었을 것이니’에는 ‘부인께서 내 자식을 거두어 ~ 나와 다시 만나게 하셨’다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반대의 상황을 가정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부인의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원 부인이 ‘이는 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하심이니’라고 하는 장면은 한씨의 정절을 치하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씨는 원 부인과 맞서고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① 장영이 천자에게 쓴 상소 중 ‘폐하께서 신에게 한 무리의 병사를 빌려주신다면 진한을 배어 국가의 근

심을 털고’에서 장영이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고, ‘신의 원수를 갚겠나이다’에서 자식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진건이 장영에게 ‘네 어미가 ~ 죽이고 도망했거늘’이라고 하는 것에 장영의 어머니 한씨와 진씨 가문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으며, 진건이 장영에게 대적하는 것에 진건과 장영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진씨 가문과 장영 가문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장영이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 한씨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낱낱이 고’하고 한씨 또한 장영에게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말하며 ‘두 사람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였다는 것에서 이별을 겪었던 가족이 재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진씨가, ‘그대는 여전히 날 해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한씨의 물음에 ‘그 마음이 죽기 전에야 어찌 사라지리오?’라고 하는 것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부인으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지키려 함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22 ~ 26] <출전> 정식, 「축산별곡」
윤기, 「명성에 대하여」

2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이 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이고’,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등에서, (나)는 ‘제가 자초한 것도 퇴계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등에서 각각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은 ‘백성들’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백성들을 ‘교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무력감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강가의 술바람’이 인간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에 화답한다는 것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한유’, ‘두보’와 같은 인물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한유, 두보의 행위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남여’를 타고 ‘백석정’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후에 느낀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라는 심회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깊은 밤’이라는 늦은 시간에 ‘고아주’를 가득 붓고 ‘고운 노래’를 들으면서 흥취를 돋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는 ‘후학’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작가가 후학에게 권면의 뜻을 전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는 ‘수모’를 겪은 후 더욱 노력하여 ‘대현’이 되었다는 대상으로, 작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평가’한 ‘지친’의 행위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논의의 대상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가 ‘이 땅의 수령’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백성들에게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라고 한 것에는 지방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글쓴이가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20세가 넘도록 이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일 뿐, 지금까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가 ‘고을’의 풍속을 살피면서 ‘충효도 갖추’고 ‘열녀도 많’다고 한 것에는 백성들이 충, 효 등의 유교적 덕목을 잘 갖추고 있다고 여기는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화자가 ‘배를 띄워 노룡연으로 내려가’서 ‘푸른 물결에 비’친 ‘바위 사이 진달래’를 보는 것에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글쓴이가 ‘글 자체’보다 ‘글쓴이의 명성’에 따라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 것에는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글을 평가하는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가 ‘선정에 힘을 쓴다’며 ‘임금님께 매인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한 것에는 백성에 대한 선정과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 글쓴이가 ‘이번 경험’을 ‘유익한 일’로 여기는 것에는 자신의 글이 깎아내려지고 치켜세워졌던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경험을 계기로 학문에 정진하여 개인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27 ~ 30] <출전> 최서해, 「무명초」

2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춘수가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은 ‘자네 돈 원 변통해주게’라는 것에서 춘수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인 주인에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은 의사가 ‘그런데 박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라는 질문에 춘수가 아프다고 한 대답을 듣고 준 것일 뿐 춘수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또 만납시다’라는 주인의 소리를 춘수가 ‘다시는 오지 말아주오.’라는 ‘소리 같’다고 여긴 것이므로 주인이 다시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김’이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라는 것에서 원고를 쓰기 전에 원고료를 미리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중학동 어떤 친구를 찾아’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있어서 ~ 그 사람이 가지만 기다렸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의사는 춘수의 딸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묻고 춘수의 말을 들은 뒤 ‘처방을’ 썼으므로 적절하다. ⑤ ‘설사가 나’던 것이 ‘이질이 되는 듯’한 것 때문에 ‘마늘즙을 좀 먹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이라는 의사의 말에 춘수가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라고 답하고 ‘마주 웃었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처지를 언급한 것일 뿐 상대의 빈궁한 처지를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할 작정’이라는 것에서 작중 인물인 춘수가 지식인으로서 글을 쓰는 방법을 활용해 현재의 빈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구걸하기’를 ‘망설’였지만 ‘목전의 현실’ 때문에 ‘문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배’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구걸하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르는 모멸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는 때마다 거절 없이 하여 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위안을 얻는 중에도 ‘그러나 남의 기분에 ~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만 같다’는 것에서 자괴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1 ~ 34] <출전> 김용호, 「고향으로 간다」 나희덕, 「그 골목 잃어버리고」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고향으로 간다’, (나)는 ‘그들은 떠났다’ 등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고향으로’ 가며 ㉠을 ‘홀홀이 벗어 버리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고향으로 간다는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자신과 분리하는 것이다. (나)에서 화자는 ‘그들’이 ‘떠’나가고 ㉡을 ‘뺄으며 돌아오’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그들이 떠나고 그 골목이 달라진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는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화자가 ‘물들며 서 있어야’ 할 ‘황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는 ‘세월’뿐만 아니라 ‘내’라는 다른 존재도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② ㉤는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라는 뜻으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④ ㉥는 ‘몹시 급하고 바쁜 모양’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급하고 바쁘게 사라진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⑤ ㉦는 ‘내 마음의 덩굴손’이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화자가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은 과거에 화자가 한 행동일 뿐,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화자가 ‘눈’을 ‘감아도’ ‘좁은 골목 골목들이 서연하게 다가’온다고 느끼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화자가 ‘그리움을 캐’기 위해 ‘고향으로’ ‘간다’는 것에서, 과거에 떠난 삶의 공간인 고향으로 가는 목적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화자가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그 행동을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화자가 과거에 떠난 삶의 공간을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에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나)의 ‘그들’이 떠나고 ‘판잣집들이’ ‘무너져내’렸다는 것에서 화자가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인 ‘그들’이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④	37	⑤	38	①	39	②
40	②	41	⑤	42	④	43	⑤	44	③
45	④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문단에서 ‘하회탈만 턱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다른 탈도 있지만 하회탈의 절악 기법은 독창적’이라고 답변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발표 계획 반영 여부 판단하기

보는 위치에 따라 표정이 다른 하회탈이 있다는 제재 분석을 고려하여, 3문단에서 ‘웃는 것처럼 보’이는 초랭이탈의 표정과, ‘불만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초랭이탈의 두 표정을 보여 주기 위해 초랭이가 ‘양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초랭이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청중 분석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탈의 아래턱을 분리해서 끈으로 위턱과 연결하여 위아래로 턱을 움직일 수 있게 해 표정 변화를 드러내는 기법’인 ‘절악 기법’을 언급하고, 양반탈의 상반된 표정인 ‘호탕하게 웃는 표정’과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표정을 보여 주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 분석을 고려하여, 3문단에서 ‘출랑대며 양반을 조롱하던 인물’인 초랭이에 대한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초랭이의 외양인 ‘비뚤어진 입’을 보여 주는 초랭이탈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재 분석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하회탈이 가진 차별점인 ‘위턱 밑에 아래턱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턱의 상하 움직임이 자유로워 여러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 오키나가면과 양반탈’을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재 분석을 고려하여, 3문단에서 ‘왼쪽에서 바라볼 때 광대뼈가 더 올라와 보여 비대칭적 표정이 더 두드러지는’ 초랭이탈의 좌우 조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초랭이탈의 양 볼이 ‘10mm’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주는 3D 실측 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2’는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인 하회탈은 ‘나무를 조각해 만든’이었다는 1문단의 내용을 토대로 ‘탈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아 ‘하회탈도 그런 줄 알았’던 배경지식을 하회탈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수정하고 있지만,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배경지식을 수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새로 알게 된 내용인 ‘하회탈의 다양한 표정을 드러내는 조형적 기법’을 언급하며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고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1문단의 ‘나무를 조각해 만든 탈’이라는 발표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인 ‘탈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다는 것과 비교하며 ‘왜 하회탈은 나무로 만들었을까?’라고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인 ‘초랭이탈의 크기가 작은 이유’를 ‘발표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도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눈가 주름을 조각하는 데에’ 사용된 ‘특별한 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고, ‘학생 3’은 ‘초랭이탈의 크기가 작은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누리집에서 찾아봐야’겠다고 말한 것으

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학생 1’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앞선 발언들을 정리하고 이어서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쇼트 폼이 유행하고 있다는 ‘학생 3’의 말에 대해 ‘학생 2’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좋은 일에 동참하는 쇼트 폼을 제작하고 공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쇼트 폼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 3’은 쇼트 폼을 통해 ‘신뢰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3’은 상대의 의견을 다른 측면에서 언급하며 우려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 파악하기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들을 담은 내용으로 쇼트 폼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뿐, (나)의 2문단처럼 ‘쇼트 폼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쇼트 폼을 구성하는 내용의 특성을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언급된, 1분 이내인 쇼트 폼의 분량상 특징을 (나)의 1문단에서 쇼트 폼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언급된, 쇼트 폼의 압축된 정보를 이해할 때 발휘되는 역량인 ‘집중력’을 (나)의 3문단에서 ‘정보가 압축되어 ~ 강한 집중력’이 요구되어 청소년이 사고하는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언급된 ‘아이스 버킷’ 도전 영상 제작 경험을 (나)의 3문단에서 청소년들이 쇼트 폼 제작을 통해 생산하는 소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해 영상 신고와 시청 시간 설정을 (나)의 4문단에서 건강한 영상 소비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비평문 점검하기

(나)의 2문단에서 ‘쇼트 폼의 유행이 ~ 우려한다’는 일부의 의견을 3문단에서 ‘쇼트 폼을 시청하는 ~ 여기는 관점’이라고 언급한 것은, 필자가 비평 대상에 대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한 것이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최근 청소년들 ~ 유행이다’라고 언급하며 글의 비평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쇼트 폼의 유행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3문단에서 청소년이 사고하는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고 생산하는 소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을 모두 언급하며 비평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다루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에서 필자가 비평 대상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근거로 청소년들이 ‘아이스 버킷’ 도전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필자가 비평 대상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관

점의 근거로 청소년들이 쇼트 폼을 시청하며 가치 있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강한 문해력을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나)의 3문단에서 쇼트 폼의 유행은 청소년들이 사고하는 소비자로 거듭나고 생산하는 소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쇼트 폼 열풍,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로’라는 표제는 글의 핵심 제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쇼트 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영상 홍수의 시대, 방향키는 우리 손에’라는 부제에서 ‘영상 홍수’와 ‘방향키’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문단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이 어려우며,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원인율, 3문단에서 ‘교차로 주변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횡단보도를 재설치’해야 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글의 결론 작성하기

‘시장 앞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안’인 교차로 주변 도로 환경 개선, 횡단보도 재설치,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을 모두 언급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인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어 시민들은 안심하고 전통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3문단에서 ‘보행자 유무를 알려 주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ㄱ-1]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횡단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 [자료 ㄷ]에서 ‘보행자에게 차량 유무를 알려 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운전자에게 보행자 유무를 알려 주는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횡단 중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보행자 유무를 알려 주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ㄱ-1]에서 횡단 중 교통사고의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자료 ㄱ-2]에서 노년층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통해, 1문단의 ‘어르신들의 교차로 횡단 중 사고율이 높다.’라는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교차로 횡단 중 사고율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ㄴ]에서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넓혀 횡단보도 침범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을 통해, 2문단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움’ 중 ‘정지선과의 거리도 2m로 짧은 편이다.’라는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ㄷ]에서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통해, 3문단의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과의 관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ㄴ]에서 ‘운전자 대상 캠페인’ 병행 결과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것과 [자료 ㄷ]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책임 있는 운전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실시하면 좋다는 것을 통해, 3문단의 ‘지자체에서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시장 앞 교차로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시장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한 방어 운전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㉑	36	㉒	37	㉓	38	㉔	39	㉕
40	㉖	41	㉗	42	㉘	43	㉙	44	㉚
45	㉛								

35. [출제의도] 띄어쓰기의 원칙 이해하기

2문단에서 ‘보조 용언은 용언이 어휘적 의미가 희박해지고 문법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어미와 접사의 경우는 자립 가능하지 않으므로 단어가 아니며, 따라서 띄어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띄어쓰기는 ~ 정확한 이해를 도와’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조사는 단어임에도 예외적으로 앞말과 붙여 쓰는데’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보조 용언도 형태상 활용을 하고 기능상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이해하기

‘태워 갈게’는 본용언 ‘태워’와 본용언 ‘갈게’가 연결된 것으로, ‘태워서 갈게’의 연결 어미 ‘-어서’가 ‘서’가 줄어들어 된 연결 어미 ‘-어’가 연결된 것이다. 5문단에서 ‘본용언과 본용언이 연결된 것’인 경우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태워’와 ‘갈게’는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태워’와 ‘갈게’를 붙여 쓸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다.

① ‘파고들어 보았다’는 합성어인 본용언 ‘파고들어’와 보조 용언 ‘보았다’가 연결 어미 ‘-어’로 연결된 것이다. 4문단에서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 보조 용언을 붙여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파고들어’와 ‘보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손써 보자’는 합성어인 본용언 ‘손써’와 보조 용언 ‘보자’가 연결 어미 ‘-어’로 연결된 것이다. 4문단에서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 ‘본용언의 활용형이 2음절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손써’와 ‘보자’를 붙여 쓸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머물러 볼 법하다’는 본용언 ‘머물러’와 보조 용언 ‘볼’이 연결 어미 ‘-어’로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 보조 용언 ‘법하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거듭하여 연결된 경우이다. 4문단에서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거듭하여 연결된 경우에는’ ‘본용언 바로 뒤의 보조 용언만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머물러’와 ‘볼’을 붙여 쓸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울 듯도 하다’는 의존 명사 ‘듯’에 조사 ‘도’가 붙고 그 뒤에 용언 ‘하다’가 온 것으로, 의존 명사와 용언이 나열된 것이다.

5문단에서 ‘의존 명사에 조사가 붙’어 ‘의존 명사와 용언이 나열된 것’일 때는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듯도’와 ‘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맑지[막찌]’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교체 1회, 탈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고, ‘백합꽃[배깅꼇]’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 1회, 축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며, ‘짓이기다[진니기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ㄴ 첨가가 일어나 교체 2회, 첨가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여 적절하다.

① ‘홀이불[흔니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ㄴ 첨가가 일어나 교체 2회, 첨가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만, ‘굳이[구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교체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고, ‘직행열차[지깅닐차]’는 거센소리되기와 ㄴ 첨가가 일어나 축약 1회, 첨가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맑는[밤:는]’은 비음화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교체 1회, 탈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고, ‘탓하다[타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 1회, 축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만, ‘웃맵시[온맵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 3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④ ‘침뿌리[침뿌리]’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탈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고, ‘밟히다[발피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축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고, ‘물약[물략]’은 유음화와 ㄴ 첨가가 일어나 교체 1회, 첨가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⑤ ‘넙둥글다[넙똥글다]’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교체 1회, 탈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고, ‘훗일[훈: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ㄴ 첨가가 일어나 교체 2회, 첨가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만, ‘커다랗다[커:다라타]’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축약 1회가 일어났으므로 ㉑를 만족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안긴문장의 특징 이해하기

어미 ‘-(으)ㄴ’, ‘-기’는 명사절을, 어미 ‘-(으)ㄴ’, ‘-는’ 등은 관형절을, 어미 ‘-도록’ 등은 부사절을, 조사 ‘고’, ‘라고’는 인용절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㉑은 이러한 어미나 조사가 없는 절로, 서술절을 의미한다. ‘바람이 더 잘 통한다’는 어미나 조사 없이 다른 문장에 안겨 있는 서술절이므로 적절하다.

① 어미 ‘-도록’이 붙은 부사절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어미 ‘-는’이 붙은 관형절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조사 ‘고’가 붙은 인용절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㉑의 ‘익’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지만, ㉑의 ‘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㉑은 앞 형태소 ‘돌-’의 끝소리 ‘ㄹ’을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㉑과 ㉑의 초성 ‘ㅁ’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㉑의 ‘넙고’는 현대어 ‘입고’와, ㉑의 ‘닐어늘’은 현대어 ‘이르거늘’과 다르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㉑은 ‘무리 闊浮提(염부제)에 ㄱ득 亨야도’에서 모음 ‘이’로 끝난 주어인 ‘무리’에 주격 조사

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B]는 보도의 취재 현장인 □□농업 연구소에서 기자가 직접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였으나, [A]는 취재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보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보도 내용과 관련된 소재인 사과 이미지를 보도의 주요 내용인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의 변화’와 함께 화면 우측 상단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는 시청자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오래 앉아 ~ 건강에 도움 돼.’라는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 정보를 화면 하단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는 화면을 분할하여 ‘□□농업 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 장면과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 또 다른 장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도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B]는 기자의 발화의 일부인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 힘쓰고 있습니다’를, [C]는 연구원의 발화의 일부인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 과수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를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시청자 3’은 ‘농민’의 발화인 ‘기온이 오르면서 감자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와 ‘저희도 사과 농사를 시작했어요’에 주목하여, 기온 상승으로 재배하던 작물을 바꾸었다는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㉔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의 ‘이’는 지시 대명사로 ‘앞으로의 재배 환경은 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라는 자신의 직전 발화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⑥에서 그림 자료로 제시한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다양한 작물 시험 재배’는 (가)의 기자의 마지막 발화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의 사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포도와 사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였음을 시각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도에 포도와 사과 이미지를 넣고 포도와 포도, 사과와 사과 사이에 화살표로 재배 한계선의 이동을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기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기온의 상승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부분인 ‘2.1℃’라는 숫자와 기호를 굵게 하고 기울여서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는 참고 자료의 목록으로 ‘2024년 상반기 연구 보고서’와 ◇◇뉴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의 변화’의 제목을 각각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활용 방식 분석하기

㉔에서는 ‘지훈’이 학생회의 활동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학생회 연간 활동 계획서’ 문서를 전송하고 있는 것이지, 앱 제작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대화 참여자들이 하트 모양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시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 ‘재혁’이 제시한 ‘획득한 배지를 앱 화면에 보여 주’자는 의견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은 ‘혜수’가 ‘회의와 상관없는 내용이 잘못 입력’되어서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논의에서 벗어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은 ‘재혁’의 ‘학생들이 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건 어때?’라는 의견에 대해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은주’가 ‘한 달 동안 ~ 개수도 표시’하자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지연’이 다음 회의 일정을 공지로 등록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이해하기

(가)에서 ‘지연’의 ‘건의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회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과 ‘혜수’의 ‘비밀글로만 쓸 수 있게 기능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나)에 비밀글 기능으로 건의 사항을 학생회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지, 챗린지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건의 사항을 교환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지훈’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알람창도 띄우’자는 의견과 ‘재혁’의 ‘현재까지 모은 배지 개수를 함께 알려 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에 ‘[알림] 벌써 3개나 ~ 도전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알람창을 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지연’의 ‘별 개수로 챗린지에 대한 평점을 주’자는 의견과 ‘지훈’의 ‘다른 학생들도 평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에 평점을 준 결과를 별 4개로 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은주’의 ‘챗린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혜수’의 ‘우리가 기획한 챗린지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니까 홍보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에 ‘친구에게 공유하기’ 기능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재혁’의 ‘활동 참여를 인증하면 배지를 부여하고, 획득한 배지를 앱 화면에 보여 주’자는 의견과 ‘은주’의 ‘한 달 동안 최대 모을 수 있는 배지 개수도 표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에 총 7개의 배지 개수와 현재 획득한 3개의 배지 개수를 배지 모양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